

제2회 재외동포NGO활동가 대회 (2005년 11월 1일 화 ~ 4일 금)

- 주최 : KIN(Korea International Network)
 - 주관 : 제2회재외동포NGO활동가대회추진위원회(10개 단체)
동북아두레공동체운동, 동북아평화센터, 동북아평화연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남대학교세계한상문화연구원,
중국동포의집·외국인노동자의집, 중국동포타운신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한국청년연합회(KYC),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 후원 : 재외동포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코리아포커스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활동나눔1-5

러시아에서의 삼일문화원 활동

이형근 | 모스크바 삼일문화원 원장

최근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해 언론과 방송에서 자주 다루어지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진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반도 평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몇 나라에 한인 디아스포라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오랜 기간 국내와 단절된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 이 지역의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은 늘 부족한 편이었다. 소련과의 수교이후 본인은 선교사로서 러시아에서 활동이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다가 최근에는 볼고그라드로 확대하고 있는 본인의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러시아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부딪혀 오는 것은 현장과 이론 사이에 오는 괴리문제였다. 다른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선교활동에 우선 피해야할 것은 일방적인 방법에 의한 선교인 것이다. 곧 현장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한 것을 가지고 종교적인 목적달성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형태는 장기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 것이다. 선택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심하게 말한다면 일종의 폭력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은 목회 적인 선교도 매우 중요하지만 문화 선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처음 시작한 교회는 이미 현지인 목회자에게 이양하였고 또 바람직하다고 믿었다.

초기부터 생각하였던 문화선교에 대한 관심은 고려인 디아스포라로 이어지면서 더욱 확고해 졌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고려인들에게 절실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되었고 접근하였다. 조국광복 50년을 맞던 해에 “모스크바 삼일문화원”은 설립되었다. 그 무렵은 오랜 유랑과 고난, 그리고 생활고로 민족정체성이 쇠잔해져 가고 있을 때였다. 반면 소수 지식인은 자신의 기원과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한 때였다. 그것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다민족국가인 러시아에서 소수민족으로서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삼일문화원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는 학술적인 접근이었다. 고려인과 한국인, 러시아와 한국은 오랜 기간 서로 교류하지 못했던 탓에 서로를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와 이해의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했던 것이다. 독서대국인 러시아에서 특히 모국어가 러시아어인 고려인들에게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러시아어로 된 자료가 필요하였다. 이는 모국의 뿌리인 언어와 문화 그리고 역사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였다. 어느 민족보다 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높은 러시아에서 러시아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한국사 신문”, “광장”, “진달래 꽃”, “한국의 언어” 등 기본이 되는 책들을 번역·출간해왔다. 아직 일

반 대중들에게 폭넓게 소개되지는 못했지만 고려인은 물론 러시아 한국학 학자들, 학생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그들에게 피상적인 한국의 인상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이해를 위해 꾸준히 소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글 보급과 학술대회도 병행되었다. 모스크바 한국어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해 한글날에 ‘한글반포기념 한국어 말하기 및 동요암송대회’를 실시하였는데 금년이 10회째이다. “한국학 강좌(5회)”같은 활동은 한국문화를 올바르게 알리는 작업이기도 하였다. 현재는 공공기관이 주관하지만 “삼일절기념식”은 고려인들에게 의식을 깨우치면서 역사복원에 동참시키는 계기도 되었다. 또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학문교류를 위한 ‘삼일절80주년 기념학술대회(1999.2.27)를 비롯한 5차례에 걸친 “한·러 국제학술대회”등은 한국과 러시아 학자들의 연구와 토론을 바탕으로 피상적인 이해나 오해에 그쳤던 양국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반면 고려인들에게는 다민족 국가인 러시아에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잃어버렸던 고려인 역사를 복원시켜 ‘러시아의 고려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학술대회는 소련의 해체로 침체된 러시아한국학을 복돋우면서 학자들간의 교류를 넓히는 역할도 한 셈이었다.

삼일문화원의 두 번째 방향은 치유 적인 접근에서 모색되었다.

140년간 조국을 떠나 이방인으로, 소수민족으로 살아야 했던 고려인들은 크든 작든 모두가 상처를 안고 있다. 소수민족으로 가족과 살아남아야 할 절박한 상황에서 겪어야 했던 고난들로 채워져 있는 그들의 상처들은 우리로서는 체감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그러한 역사 속에서 살아왔던 그들에게 과거에는 위로가 주어진 바도 없었고, 그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삼일문화원에서는 「스탈린 시대 정치탄압한인(고려인)희생자들」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스탈린 시대에 정치적으로 근거 없이 희생당한 고려인들의 명단을 최초로 발굴하여 정리한 기록물이다. 그 동안 비밀문서보관소에 잠자고 있던 이 명단은 구 스베틀라나 라는 고려인 여성에 의해서 수집되어 왔었다. ‘노인학교’에 출석하다가 1년이 지나서야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했는지 본인에게 자신의 고독한 작업을 공개하였고 그 명단을 바탕으로 1년의 작업 끝에 800명의 명단이 수록된 책을 출판함으로써 고려인의 비극적인 역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상처받은 고려인들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또 “모스크바노인학교”에서는 잊혀져 가는 고려인의 경험들을 노인들의 구술을 통해 시도해보기도 하였다.

현재 볼고그라드 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불안과 내전으로 유랑하게 된 고려인들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중심으로 민간단체나 종교계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 일은 어려운 현실에 처한 동포를 돕는다는 일이지만 나아가 해외에 널리 퍼져 있는 동포 가운데 러시아에서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고려인의 정착과 성장을 도모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일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물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고려인 전체는 아니지만 아직도 유랑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동포들이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들에 대한 지원은 과거의 고려인들을 위로하는 차원을 넘는 일로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 동포에 대한 모국의 책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 볼고그라드 주에는 약 3만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곳으로 1980년대까지 아주 완만하게 개별적으로 이주하다가 1990년대부터는 매우 빠르게 집단적인 이주가 이루어졌다. 예상하지 못한 이러한 이동은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배태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빈약한 조직과 지도력 부재로 외부와의 연락이나 지원을 기대할 수가 없었다. 1993년에 도착한 조익현 선교사에 의해 한국과의 접촉으로 정보와 지원이 있긴 하였지만 역부족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120여 소수민족이 공존하는 볼고그라드 주에서 고려인의 위상은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국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본부의 지원과 경기도가 볼고그라드 내 고려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면서 고려인들의 의식도 많이 향상되었다. 특히 2004년 고려인 140주년 기념 그리고 ‘볼고그라드 고려인 민족문화자치단체’도 출범하면서 구심점이 형성되면서 고려인사회의 의사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2001년부터 실시된 ‘볼고그라드 고려인 축제’를 통해 고려인의 민족 정체성이 서서히 회복되었고 볼고그라드 주에서는 고려인들의 위상도 매우 높아졌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점차 좋아지리라 생각되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의 하나는 시민권 획득문제이다.

과거 소련국민이었지만 이주해온 이들이 외국인 자격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는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다 체계적이고 쉽게 시민권 획득을 위해 법률상당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무실을 개설(2004.8.15)하였지만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겨우 기본작업만 마쳤을 뿐이다. 최근 러시아주재 한국대사관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역시 운신의 폭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문화적인 인프라 부재이다.

동질성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는 일이다. 그 동안 한민족문화에 대한 한글 보급을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종교활동과 병행하다보니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였다. 많은 고려인들이 모국문화접촉을 원하지만 문화인프라가 없는 현실에서 자포자기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 동안 4회에 걸친 ‘볼고그라드 한인축제’로 고려인의 결속이 형성되면서 문제해결에 대한 자력운동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금년의 경우 ‘한국대학생사회봉사협의회’의 대학생봉사단(32명)이 방문하여 활동함으로 고려인 청소년들이 공동생활을 통해 민족동질성 체험을 하기도 하였다. 이때 시작된 ‘사물놀이’ 경험은 ‘태백’이라는 사물놀이 팀이 탄생함으로 볼고그라드 고려인 청소년들의 ‘한국문화’ 조직이 형성되었다. 이는 100여 년을 거치면서 잊혀졌던 민족의 가락이 복원되는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하였다. 곧 그들의 핏속에 잠자고 있던 ‘문화유전자’가 되살아나는 경이로운 모습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1개월에 걸친 한국사진전시회, 사물놀이 공연 등으로 이지역 고려인뿐 아니라 러시아인들에게도 한국의 이미지가 크게 심어지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몇 개의 그룹이 형성되어 작지만 볼고그라드에 한민족 문화부흥이 차츰 현실화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공공기관, NGO단체 그리고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 같은 도움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격려와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특히 고려인의 시민권 문제와 문화적인 인프라 구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곧 볼고그라드 고

려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식 있고 건전하고 다양한 단체들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이것은 모국에 살고 있는 개인뿐 아니라 단체나 공공기관이 해외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해 항상 빛진 마음으로 살아갈 때 먼 훗날 한국사회는 세계 속에서 꾸준히 발전하리라 믿는다.